

행위자 특성과 도덕적 정화방법이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Wrongdoer's Characteristics and Moral Cleansing Method on Moral Evaluation

진승재¹ · 이형철² · 김신우^{3†}

Seungjae Jin¹ · Hyung-Chul O. Li² · ShinWoo Kim^{3†}

Abstract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evaluation of moral cleansing behavior following an immoral act depends on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 wrongdoer. To this end, resource availability was manipulated by the wrongdoer's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vs. physical health condition) and type of moral cleansing (donation vs. volunteer work), and participants rated the pain of the moral cleansing behavior, hypocrisy, and forgivability. Study 1 presents a scenario where a wrongdoer, either high or low in socioeconomic status, conducts moral cleansing via donation or volunteer work. Participants judged donation by those high in socioeconomic status to be not so painful, hypocritical, and unforgivable. Study 2 described a scenario in which a wrongdoer, either physically strong or weak, performs an act of moral cleansing either by donation or volunteer work. Participants considered those sickly wrongdoers' volunteer work to be painful, less hypocritical, and (compared with other conditions) more forgivable. Mediation analyses showed that in both Studies 1 and 2, pain in moral cleansing influenced the hypocrisy judgment which, in turn, affected perceived forgivabil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ven for the same expiatory behavior, moral judgment depends on the actor's available resources. That is, people believe that moral cleansing should involve pain; otherwise, the act is hypocritical and unforgivable.

Key words: Moral Cleansing, Hypocrisy, Forgivability, Pain, Resource Availability

요약

본 연구는 부도덕한 행동 이후에 발생하는 정화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행위자 특성(사회경제적 수준, 신체건강 수준)을 달리하여 도덕적 정화방법(기부, 봉사)에 따른 자원 가용성을 조작했으며, 참가자들은 도덕적 정화행동에 따른 고통, 위선의 정도, 그리고 용서 가능성을 평정했다. 연구 1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낮은 사람이 기부 혹은 봉사를 통해 도덕적 정화행동을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부유한 사람의 기부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며, 위선적이고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 2에서는 신체가 건강하거나 병약한 사람이 기부 혹은 봉사를 통해 잘못을 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 결과 병약한 사람의 봉사활동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덜 위선적이며 (다른 조건에 비해) 용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매개분석 결과 연구 1, 2 모두에서 정화행동의 고통이 클수록 위선을 약하게 판단하며, 이는 용서 가능성을 높이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동일한 정화행위라도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즉, 사람들은 도덕적 정화행동은 고통을 수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행위는 위선적이며 용서하기 어렵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도덕적 정화, 위선, 용서 가능성, 고통, 자원 가용성

* 이 논문은 2021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¹진승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석사졸업

²이형철: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3†}(교신저자) 김신우: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 E-mail: shinwoo.kim@kw.ac.kr / TEL: 02-940-5421

1. 서론

우리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기부, 봉사 등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곤 한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한 행위자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도덕적 일탈행동에 수반하여 나타날 경우 모순적으로 느껴지거나 혹은 위선적으로 평가되곤 한다.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도 행위자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난 후 어느 복지재단에 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큰 돈을 기부했음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에게 기부는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위반행위를 한 다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행위자에게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후속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훼손된 도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가 발생하는데(Klass, 1978) 이에 따른 행동을 도덕적 정화(moral cleansing) 혹은 도덕적 정화행동이라 한다(e.g., Ding et al, 2016; O'Connor et al., 2020; West & Zhong, 2015). 도덕적 정화는 단순한 속죄행동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덜기 위해 몸을 씻거나 제사를 지내는 등의 상징적 행동도 포함한다. 흥미로운 것은 도덕적 정화행동에 대한 평가는 예를 든 바와 같이 행위자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가용성(resource availability)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때 자원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희소성있는 자산으로 돈, 정보, 지위, 권한, 물건, 서비스, 인간관계 등을 포괄하며(Cropanzano & Mitchell, 2005; Foa & Foa, 2012; Hobfoll, 2002), 자원 가용성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혹은 획득 가능성의 정도를 지칭한다(Törnblom & Kazemi, 2012; Wang et al., 2019).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도덕적 정화를 위해 금전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자신의 권력이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혹은 체력이나 시간을 사용해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덜기 위한 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때 행위자가 자신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죄책감을 해결하고 도덕적 자아를 회복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잘못을 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징벌이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정화행동(moral cleansing behavior) 즉 도덕적 위반 이후에 이어지는 보상적 행동을 통해 정서적 불쾌감, 죄책감 등과 같은 도덕적 위협을 상쇄하는 것(West & Zhong, 2015; Ding et al., 2016)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행위자의 경제적(연구 1), 신체적(연구 2) 자원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정화행동이 행위자에게 큰 고통이나 희생을 가져온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정화행동에 대한 위선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존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용서 가능성도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정화행동에 따른 ‘고통’ → ‘위선’ → ‘용서 가능성’ 판단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비례하여 잘못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을 보여준다. O'Connor et al.(2020)는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주관적 죄책감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을 때,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더 위선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사람들이 잘못에 따라 죄책감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nbar et al.(2013)은 실험을 통해 죄책감을 크게 느낄수록 자신에게 더 강한 신체적 처벌을 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회상한 사람들은 슬프거나 중립적인 사건을 회상한 집단보다 죄책감이 높았고 이들은 자신에게 더 강한 전기 충격을 가했다. 사람들은 형평성에 따른 기준을 지키고, 정의로운 세상을 믿으며, 무임승차자(free-rider)를 처벌하도록 동기화되어있다(Jordan et al., 2016). 따라서 Inbar et al.(2013)의 실험처럼 죄책감을 느낄 때 자신을 처벌하듯이 타인도 도덕적 일탈을 저질렀을 때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Johnson(2018)은 타인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평가에서 그 행동으로 발생한 이익보다 그 행동에 수반된 행위자의 고통이나 희생 정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선은 전통적으로는 공적인(public) 이미지와 사적인(private) 행동이 불일치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겉으로는 선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Monin & Merritt, 2012; Stone & Fernandez, 2008).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행동의 불일치는 인지 부조화(e.g., Festinger, 1957)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비일관성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을 불편해한다(Barden et al., 2005; Tedeschi et al., 1971).

유사한 맥락에서 Jordan et al.(2017)은 누군가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거짓 신호(false signal)를 보낼 때 사람들이 위선을 지각함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하는 행동은 발언자의 도덕적 우월성을 신호하는 중요한 단서로 간주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발언과 상충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경우(즉 언행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기존의 발언은 스스로의 도덕성에 대한 거짓 신호를 보낸 것이 되어 사람들은 위선을 지각한다.

마지막으로 O'Connor et al.(2020)는 누군가 부당한 도덕적 혜택(undeserved moral benefit)을 누릴 때 사람들은 위선을 지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죄책감이나 자존감 하락과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하기 마련인데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이를 편리하게 해소하는 것(즉, 부당한 도덕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다. O'Connor, et al.(2020)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덕적 위반자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감이나 자존감 하락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 해야한다고 믿는다(e.g., Lerner, 1980; Rubin & Peplau, 1975). 이 때문에 누군가 도덕적 과오에 따른 부정정서를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털어버린다면 사람들은 이를 부당하며 위선적이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정화행동임에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의 가용성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즉 도덕적 정화의 고통이 낮은 경우) 사람들은 높은 위선을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도덕적 정화행동은 위선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져 용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징벌적인 감정을 가진다(Effron et al., 2018; Laurent et al., 2014; Lee, 2021). 어떤 사람이 위선적으로 지각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구직 장면에서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감소하거나 더 낮은 임금을 제안받았다(Effron et al., 2015).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부정직한 정치인은 단순히 부정하기만 한 정치인에 비해 평판이 더 손상되었다(Bhatti et al., 2013). 기업이 위선적으로 평가될 경우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Janney & Gove, 2011).

본 연구는 도덕적 정화행동이 수반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따라 부도덕한 행동을 한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도덕적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죄책감 등의 부정정서와 함께 도덕적 자아상에 위협을 받게 된다. 죄책감을 상쇄하고 도덕적 자기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도덕적 정화행동이 동기화된다(Klass, 1978). 사람들은 행위자가 잘못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행위자가 쉽게 죄책감을 회복하는 경우 위선을 지각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 정화행동이 수반하는 고통은 행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액수의 기부금이라도 부자는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육체노동으로 얻은 일당을 긴 시간 저축을 해야할 수도 있다. 건강한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도 병약한 사람은 매우 힘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두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도덕적 정화행동에 대한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1

연구 1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도덕적 정화 방법에 따른 행위자의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판단을 검증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도덕적 위반 행위와 이어지는 정화행동이 포함된 4개의 시나리오를 읽고 각 시나리오에서 행위자의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을 평정했다.

2.1. 방법

2.1.1. 참가자

20대 성인 60명(남 39명, 여 21명)이 온라인 설문 실험에 참여했으며, 평균 연령은 24.8세($SD = 2.89$)였다.

2.1.2. 실험 설계

각 독립변인을 참가자 내 요인(within-subject factor)으로 하는 2(사회경제적 수준: 고, 저) × 2(도덕적 정화: 기부, 봉사) 설계를 사용했다. 각 참가자들은 네 가지 도덕적 위반 시나리오를 읽고, 각 시나리오를 읽을 때마다 세 가지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했다.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순서에 의한 순서효과(order effect)를 배제하고자 반대 순서의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 순서 조건을 사용했고, 제시 순서 조건은 무선 할당했다.

실험결과 외적 타당도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행위와 미성년자의 허위신고를 묘사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했다. 시나리오 종류는 참가자간 요인으로 구성하여 각 참가자는 하나의 시나리오 상황에서 네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읽고 설문에 답했다.

2.1.3. 독립변인 조작

사회경제적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행위자의 배경을 다르게 묘사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행위자는 부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유한 가정환경에 더해 안정적인 수입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조건의 행위자는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 더해 지출 부담이 큰 상황으로 묘사했다. 시나리오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참가자 12명에게 두 조건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묘사한 글을 읽게 한 다음 9점 척도(0 =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 8 =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에 평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M = 6.67$, $SD = 1.23$) 낮음($M = 1.42$, $SD = 1.31$)에 따른 참가자들의 평정값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t(11) = 12.79$, $p < .001$.

도덕적 정화 방법은 도덕적 위반 뒤 행위자가 기부 또는 봉사하는 내용을 묘사함으로써 조작했다. 기부 조건에서는 봉사 단체에 금전을 통해 기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봉사 조건에서는 봉사 단체에서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내용을 묘사했다. Appendix에 사

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기부하는 시나리오(교직원 부정행위)를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봉사하는 시나리오(미성년자 허위신고)도 함께 제시했다.

2.1.4. 종속변인 측정

참가자들은 각 시나리오를 읽고 행위자의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을 묻는 세 가지 문항에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행위자의 고통에 대해 9점 척도(0 =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다, 8 = 매우 힘든 일이었다)를 통해 시나리오 내 행위자가 기부(또는 봉사)를 함으로써 얼마나 힘들었을 지를 평가했다. 위선에 대해서도 9점 척도(0 = 전혀 위선적이지 않다, 8 = 매우 위선적이다)를 통해 그러한 기부(또는 봉사)가 얼마나 위선적이라고 판단하는지를 평정했다. 또한 용서 가능성에 대해 9점 척도(0 = 전혀 용서할 수 없다, 8 = 완전히 용서할 수 있다)를 통해 그러한 기부(또는 봉사)로 행위자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지를 판단했다.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에 대한 질문순서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문항순서는 각 참가자별로 무선화하여 제시했다.

2.1.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사용했다. 이 시나리오들은 행위자 특성, 위반행위의 종류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달랐으며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보편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 사전분석 결과 시나리오가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아(all $ps > .10$) 자료를 통합해 분석했다.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도덕적 정화 방법이 행위자의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각 종속변인에 대해 2(사회경제적 수준: 고(부자), 저(가난)) × 2(도덕적 정화 방법: 기부, 봉사) 반복측정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했다.

앞서 서술한 대로 사람들은 도덕적 정화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에 따라 위선을 다르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직관적으로 행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가능성과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고통 → 위선 → 용서가능성). 정화방법이 높은 고통을 수반한다면 위선을

낮게 지각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을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부정행위에 의해 동기화된 도덕적 정화방법이 행위자에게 별다른 고통을 주지 않는 경우 위선을 지각하고 이에 따라 용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통을 독립변인, 위선을 매개변인, 용서 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2.2. 결과 및 논의

2.2.1. 행위자의 고통

Fig. 1의 왼쪽 그림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화방법에 따른 행위자의 고통에 대한 평정결과를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M = 3.07, SD = 2.28$)보다 낮을 때($M = 4.65, SD = 2.12$) 행위자가 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판단했다, $F(1, 59) = 56.32, p < .001$. 도덕적 정화방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9) = 1.34, p = .242$. 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과 도덕적 정화방법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59) = 149.3, p < .001$.

세부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경우 봉사($M = 3.30, SD = 1.96$)보다 기부($M = 6.00, SD = 1.25$)가 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평정했다, $t(59) = 10.49, p < .001$. 반면 부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봉사($M = 4.60, SD = 1.68$)가 기부($M = 1.53, SD = 1.69$)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판단했다, $t(59) = -9.93, p < .001$. 이는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정화에 따른 고통이 다를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한다.

2.2.2. 행위자의 위선

Fig. 1의 가운데 그림은 위선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M = 4.98, SD = 1.80$)보다 높을 때($M = 5.63, SD = 1.84$) 위선을 강하게 지각했다, $F(1, 59) = 27.62, p < .001$. 또한 정화방법이 봉사일 때($M = 5.17, SD = 1.78$)보다 기부일 때($M = 5.43, SD = 1.91$) 위선을 높게 지각했다, $F(1, 59) = 5.96, p = .02$.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도덕적 정화 방법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59) = 65.76, p < .001$.

세부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기부($M = 4.50, SD = 1.69$)가 아닌 봉사($M = 5.45, SD = 1.80$)를 통해 정화하는 것이 더 위선적이라 평가했다, $t(59) = -4.90, p < .001$. 반면 부자에 대해서는 기부($M = 6.37, SD = 1.65$)를 봉사($M = 4.88, SD = 1.73$)보다 더 위선적으로 판단했다, $t(59) = 8.38, p < .001$. 행위자의 위선에 대한 판단은 고통과 반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덕적 정화에 따른 고통이 클수록 위선을 약하게 평가함을 보여준다.

2.2.3. 용서 가능성

Fig. 1의 오른쪽 그림은 용서 가능성에 대한 참가자의 평정값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M = 2.20, SD = 2.01$)보다 낮을 때($M = 2.76, SD = 1.80$) 용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F(1, 59) = 8.45, p = .005$. 또한 도덕적 정화방법이 기부일 때($M = 2.17, SD = 1.89$)보다 봉사일 때($M = 2.79, SD = 1.91$) 용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F(1, 59) = 12.71, p < .001$. 사회경제적 수준과 도덕적 정화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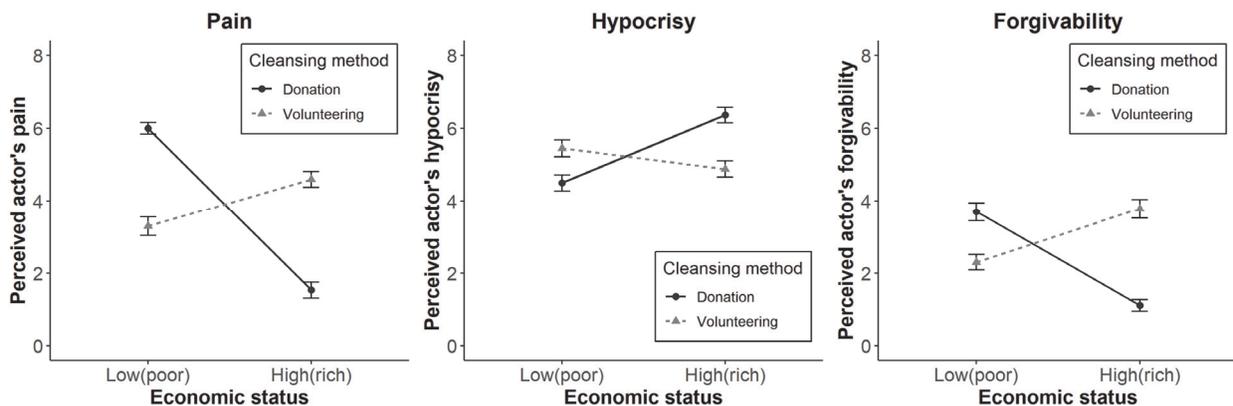


Fig. 1. Effects of economic status and cleansing method on pain, hypocrisy, and forgiveness
Error bars represents standard error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59) = 69.17, p < .001$.

용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고통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봉사($M = 2.30, SD = 1.64$)를 했을 때보다 기부($M = 3.22, SD = 1.84$)했을 때 용서가능성을 높게 평정했다, $t(59) = 4.64, p < .001$. 반대로 부자의 경우에는 기부($M = 1.12, SD = 1.25$)보다 봉사($M = 2.58, SD = 1.78$)했을 때의 용서가능성이 높았다, $t(59) = -8.85, p < .001$. 이는 정화에 따른 고통이 클수록 부정한 행위를 용서할 수도 있다는 참가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2.2.4. 매개분석

Fig. 2는 고통을 독립변인, 위선을 매개변인, 용서 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부분매개모형을 보여준다. 도덕적 정화에 따른 고통이 용서 가능성을 높이며, 두 변인간의 관계는 지각된 위선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SPSS PROCESS macro (Hayes, 2013; Model 4)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표준오차 비율의 정규성 가정이 불필요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했으며 검증을 위한 재추출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고통이 위선을 경유하여 용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b = .07, SE = .03, 95\% CI = [.02, .13]$. 구체적으로 보면, 고통에서 위선으로 가는 경로와 위선에서 용서 가능성으로 가는 경로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 즉, 고통이 클수록 위선을 낮게 평가했으며 낮은 위선은 높은 용서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3.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다른 맥락에서도 재현되는지를 검증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돈으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는 상황은 영화 등의 매체에서도 종종 다루는 진부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연구 1의 결과는 단순히 기존 경험에 의한 학습된 반응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행위자의 신체 건강수준을 조작했다. 가령 병약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봉사활동을 통해 도덕적 정화를 했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며(높은 고통), 덜 위선적이고, 따라서 용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 독립변인 사회경제적 수준을 신체 건강수준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설계, 방법, 분석 등은 연구 1과 거의 동일했다.

3.1. 방법

3.1.1. 참가자

연구 1과 마찬가지로 20대 성인 58명(남 31명, 여 27명)이 온라인 설문 실험에 참여했으며, 평균 연령은 24.6세($SD = 2.89$)였다.

3.1.2. 실험 설계 및 분석방법

연구 1의 독립변인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수준을 신체건강 수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두 독립변인을 참가자 내 요인(within-subject factor)으로 하는 2(신체 건강 수준: 고, 저) × 2(도덕적 정화: 기부, 봉사) 설계를 사용했다. 연구 1과 동일하게 교직원 부정행위와 미성년자 허위신고를 묘사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참가자간 요인으로 사용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간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all $ps > .10$) 자료를 통합해 분석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각 종속변인에 대해 2(신체건강 수준: 고, 저) × 2(도덕적 정화 방법: 기부, 봉사) 반복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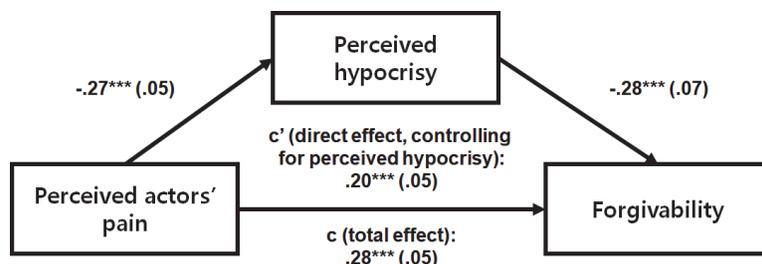


Fig. 2. Partial mediation model of study 1

정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통 → 위선 → 용서가능성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3.1.3. 독립변인 조작 및 종속변인 측정

신체건강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행위자의 특성을 다르게 묘사했다. 건강한 행위자는 운동경기 입상경력이 있는 등 신체적 강건함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대로 병약한 행위자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서술했다. 도덕적 정화 방법은 기부 또는 봉사하는 내용으로 연구 1과 유사하게 구성했다. 시나리오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참가자 12명에게 두 조건의 신체건강 수준을 묘사한 글을 읽게 한 다음 9점 척도(0 = 신체건강 수준이 낮다, 8 = 신체건강 수준이 높다)에 평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신체건강 수준이 높고($M = 7.17, SD = .94$) 낮음($M = 1.33, SD = 1.23$)에 따른 참가자들의 평정값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t(11) = 14.40, p < .001$.

종속변인 측정 문항은 연구 1과 동일했다. 참가자들은 각 시나리오를 읽고 행위자의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을 묻는 세 문항에 응답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질문순서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문항순서는 각 참가자별로 무선했다.

Appendix에 허약한 사람이 봉사하는 시나리오(교직원 부정행위)를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건강한 사람이 기부하는 시나리오(미성년자 허위신고)도 함께 제시했다.

3.2. 결과 및 논의

3.2.1. 행위자의 고통

Fig. 3의 왼쪽 그림은 신체건강 수준과 정화방법에 따른 행위자의 고통에 대한 평정결과를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건강수준이 높을 때($M = 2.61, SD = 1.38$)보다 낮을 때($M = 4.60, SD = 2.27$) 고통이 더 클것으로 판단했다, $F(1, 57) = 205.7, p < .001$. 또한 정화방법이 기부일 때($M = 2.73, SD = 1.52$)보다 봉사일 때($M = 4.48, SD = 2.28$) 고통이 더 높을 것으로 평정했다, $F(1, 57) = 95.4, p < .001$. 신체건강 수준과 도덕적 정화방법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57) = 144.4, p < .001$.

세부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은 병약한 사람의 경우 기부($M = 2.93, SD = 1.59$)보다 봉사($M = 6.28, SD = 1.47$)가 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판단했다, $t(57) = 12.65, p < .001$. 반면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부($M = 2.53, SD = 1.44$)와 봉사($M = 2.69, SD = 1.33$)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7) = 0.90, p = .37$. 이는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정화행위에 따른 고통이 다를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한다. 즉, 병약한 사람은 신체활동이 필요한 봉사가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기부 혹은 봉사에 따른 고통을 추측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2.2. 행위자의 위선

Fig. 3의 가운데 그림은 위선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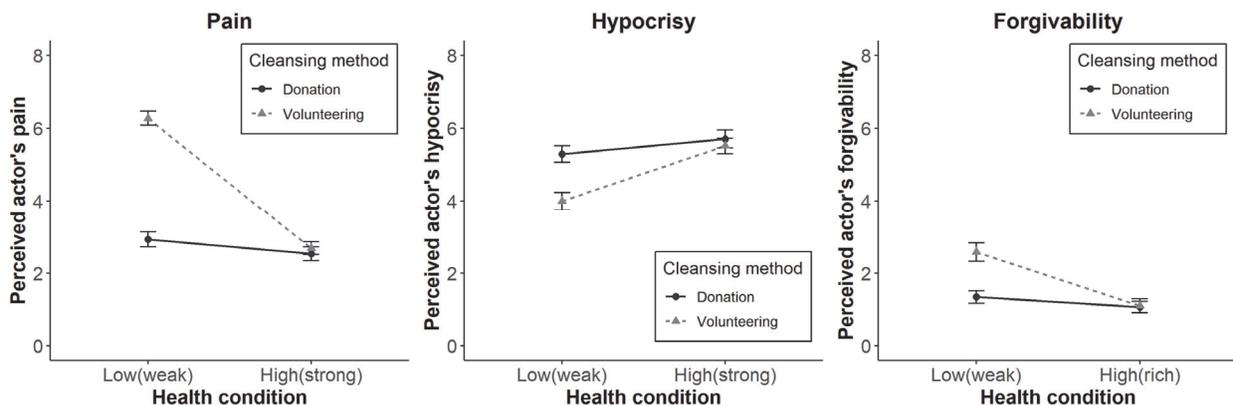


Fig. 3. Effects of health condition and cleansing method on pain, hypocrisy, and forgivenes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다. 참가자들은 건강수준이 낮을 때($M = 4.65, SD = 1.89$)보다 높을 때($M = 5.61, SD = 1.73$) 위선을 더 높게 지각했다, $F(1, 57) = 27.17, p < .001$. 또한 정화방법이 봉사일 때($M = 4.76, SD = 1.88$)보다 기부일 때($M = 5.5, SD = 1.80$) 위선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57) = 12.14, p < .001$. 신체건강과 정화방법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57) = 9.25, p = .004$.

세부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은 병약한 사람의 경우 기부($M = 5.29, SD = 1.75$)보다 봉사($M = 4.00, SD = 1.83$)를 통해 정화하는 것이 덜 위선적이라고 평가했다, $t(57) = 3.97, p < .001$.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부($M = 5.71, SD = 1.85$)와 봉사($M = 5.52, SD = 1.63$)에 따른 판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7) = .844, p = .40$. 연구 1과 유사하게 위선에 대한 평가는 고통과 반대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화에 따른 고통이 클수록 위선을 약하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3.2.3. 용서 가능성

Fig. 3의 오른쪽 그림은 용서 가능성에 대한 평정값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신체건강 수준이 높을 때($M = 1.09, SD = 1.32$)보다 낮을 때 ($M = 1.97, SD = 1.77$) 용서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했다, $F(1, 57) = 31.1, p < .001$. 또한 정화방법이 기부일 때($M = 1.21, SD = 1.28$) 보다 봉사일 때($M = 1.84, SD = 1.85$) 용서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F(1, 57) = 18.3, p < .001$. 신체건강 수준과 정화방법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57) = 17.7, p < .001$.

세부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은 병약한 사람이 기부($M = 1.34, SD = 1.33$)보다 봉사($M = 2.59, SD = 1.94$)를 했을 때 용서가능성을 높게 평정했다, $t(57) = -5.04, p < .001$.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부($M = 1.07, SD = 1.21$)와 봉사($M = 1.10, SD = 1.44$)에 따른 용서가능성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7) = -0.22, p = .83$.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용서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고통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Fig. 3). 이는 정화의 고통이 클수록 잘못을 용서할 수도 있다는 일관된 인식을 보여준다.

3.2.4. 매개분석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독립변인, 위선을 매개변인, 용서 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했다(Fig. 4). 즉, 정화에 따른 고통이 크면 용서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 관계를 위선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1과 마찬가지로 SPSS PROCESS macro (Hayes, 2013; Model 4)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했으며 검증을 위한 재추출 표본수는 5,000개였다. 분석결과 고통이 위선을 통해 용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b = .13, SE = .04, 95\% CI = [.07, .21]$. 세부적으로는 두 경로(고통 → 위선, 위선 → 용서 가능성)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도덕적 정화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선을 약하게 지각했으며 이는 용서 가능성을 높였다.

4. 종합논의

본 연구는 부도덕한 행위 이후 발생하는 도덕적 정화행동에 대한 평가가 행위자의 자원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e.g., Jo et al., 2022). 이를 위해 행위자 특성(사회경제적 지위, 신체건강 수준)과 도덕적 정화방법(기부, 봉사)을 다르게 함으로써 정화행위를 위한 자원 가용성을 조작했다. 참가자들은 도덕적 정화행동을 하는 사람의 시나리오를 읽고 행위자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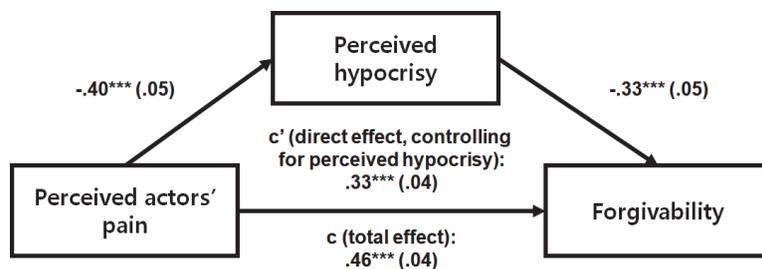


Fig. 4. Partial mediation model of Study 2

통, 위선, 그리고 용서 가능성을 평정했다. 연구 1에서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게 묘사함으로써 기부를 위한 금전적 자원 가용성을 조작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부유한 사람이 기부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며, 위선적이며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 2에서는 신체건강 수준을 조작하여 신체적 자원 가용성을 통제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병약한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며, 덜 위선적이라 평가했으며 용서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했다. 매개분석 결과 연구 1, 2 모두에서 정화행동의 고통이 위선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다시 용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했다.

연구 1, 2의 결과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정화행동에 대한 평가는 해당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일관성있게 지지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 뒤에 친사회적 행동을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했는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부는 보유한 금전의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부에 대한 주관적인 비용이 달라진다. 한편 봉사는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므로 건강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건강 수준에 따라 봉사에 대한 주관적인 비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정화행동이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주관적 비용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연구 1, 2에서의 매개분석 결과는 도덕적 정화행동에 따른 고통이 위선과 용서 가능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West & Zhong, 2015). 즉, 정확의 고통이 클수록 위선은 작게 지각되며 용서 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화행동에 따른 고통은 용서 가능성에 대해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화행동에서의 고통은 지각된 위선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용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Fig. 2 & 4). 이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즉, 도덕적 위반 행위를 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반면

그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면 용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선으로 지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선의 대표적인 예로는 표면적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적으로는 부도덕한 경우이다. 아울러 공공연히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지만 본인은 도덕적이지 못한 경우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거짓 신호(false signal)을 보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람들은 위선을 지각한다(Jordan et al., 2017).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O'Connor, et al.(2020)가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위선인 “부당한 도덕적 혜택(undeserved moral benefit)”이 왜 위선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부유한 사람의 기부(연구1)와 신체 건강한 사람의 봉사활동(연구 2)이 위선으로 여겨진 것은 그것이 행위자의 잘못에 상응하는 충분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잘못을 정화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행위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죄책감을 벗어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위선이라는 것이다.

연구 1, 2의 결과들은 모두 정화행위 수행을 위한 자원 가용성이 행위의 고통, 위선, 그리고 용서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자원 가용성 조작을 위해 부자의 경제력(연구1)과 건강한 사람의 신체 활동력(연구 2)을 활용했다. 그런데 Fig. 1 vs. 3의 결과 패턴은 표면적으로 달라보일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는 상동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실험 조건에 따라 평정값의 절대적인 값 차이는 발생했지만 각 종속변인 별로 상호작용 패턴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매개분석 결과가 연구 1, 2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9점 척도[0~8]를 사용했다. 따라서 중간 점수인 4점을 기준으로 크거나 작은 평정값은 질적으로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Fig. 1, 3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평정값이 4점 아래위로 점수가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위선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평정값은 4점 혹은 그 이상이었으며, 용서 가능성에 대한 평정값은 4점 혹은 그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모든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행위자를 부정적

으로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자의 고통에 따라 위선과 용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위선과 용서 가능성에 대한 이분법적 판단의 질적 변화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화행위에 따른 고통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행위자에 대한 긍정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혹은 행위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정화행동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연구 1)과 신체건강 수준(연구 2)을 조작하여 각 독립변인이 특정한 정화행동과 상호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다만, 사회경제적 수준과 신체건강 수준을 하나의 실험에서 동시에 조작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두 변인들이 특정한 정화행동과 결합하여 행위자의 고통, 위선, 용서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중요한 것은 행위자 특성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특정한 정화행동을 수월하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위선을 지각하여 용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참가자들은 특정한 정화행동에 동원할 수 있는 행위자의 자원에 따른 고통에 근거하여 위선, 용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자들의 예측이다.

예를 들어, 가난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신체자원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에 따른 고통이 비교적 낮을 수 있다. 반면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에게는 형편에 넘치는 기부가 고통스러울 것이며 따라서 위선이 낮게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자원 가용성에 따른 정화행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완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Barden, J., Rucker, D. D., & Petty, R. E. (2005). Saying one thing and doing another: Examining the impact of event order on hypocrisy judgments of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1), 1463-1474. DOI: 10.1177/0146167205276430
- Bhatti, Y., Hansen, K. M., & Olsen, A. L. (2013). Political hypocrisy: The effect of political scandals on candidate evaluations. *Acta Politica, 48*(4), 408-428. DOI: 10.1057/ap.2013.6
- Cropanzano, R., & Mitchell, M. S. (2005). Social exchange theory: An interdisciplinary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1*(6), 874-900. DOI: 10.1177/0149206305279602
- Ding, W., Xie, R., Sun, B., Li, W., Wang, D., & Zhen, R. (2016). Why does the “sinner” act prosocially? The mediating role of guilt and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identity in motivating moral cleansing. *Frontiers in Psychology, 7*, 1317. DOI: 10.3389/fpsyg.2016.01317
- Effron, D. A., Lucas, B. J., & O'Connor, K. (2015). Hypocrisy by association: When organizational membership increases condemnation for wrongdo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30*, 147-159. DOI: 10.1016/j.obhdp.2015.05.001
- Effron, D. A., Markus, H. R., Jackman, L. M., Muramoto, Y., & Muluk, H. (2018). Hypocrisy and culture: Failing to practice what you preach receives harsher interpersonal reactions in independent (vs. interdependent) cult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6*, 371-384. DOI: 10.1016/j.jesp.2017.12.009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Foa, E. B., & Foa, U. G. (2012). Resource theory of social exchange. In K. Törnblom & A. Kazemi (Eds.), *Handbook of social resource theory: Theoretical extensions, empirical insights, and social applications*. New York: Springer. DOI: 10.1007/978-1-4614-4175-5_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 307-324. DOI: 10.1037/1089-2680.6.4.307
- Inbar, Y., Pizarro, D. A., Gilovich, T., & Ariely, D. (2013). Moral masochism: On the connection between guilt and self-punishment. *Emotion, 13*(1), 14. DOI: 10.1037/a0029749
- Janney, J. J., & Gove, S. (2011). Reputatio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berrations, trends,

- and hypocrisy: Reactions to firm choices in the stock option backdating scandal.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8(7), 1562-1585. DOI: 10.1111/j.1467-6486.2010.00984.x
- Jo, J., Li, H.-C. O., & Kim, S. (2022). Influence of power and status on social exclusion (제3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른 사회적 배제행위에 대한 판단). *Science of Emotion & Sensitivity*, 25(2), 31-44. DOI: 10.14695/KJSOS.2022.25.2.31
- Johnson, S. G. B. (2018). Dimensions of altruism: Do evaluations of prosocial behavior track social good or personal sacrifice? Available at SSRN 3277444. DOI: 10.2139/ssrn.3277444
- Jordan, J. J., Hoffman, M., Bloom, P., & Rand, D. G. (2016). Third-party punishment as a costly signal of trustworthiness. *Nature*, 530(7591), 473-476. DOI: 10.1038/nature16981
- Jordan, J. J., Sommers, R., Bloom, P., & Rand, D. G. (2017). Why do we hate hypocrites? Evidence for a theory of false signaling. *Psychological Science*, 28(3), 356-368. DOI: 10.1177/0956797616685771
- Klass, E. T. (1978). Psychological effects of immoral actions: The experimental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85(4), 756-771. DOI: 10.1037/0033-2909.85.4.756
- Laurent, S. M., Clark, B. A., Walker, S., & Wiseman, K. D. (2014). Punishing hypocrisy: The roles of hypocrisy and moral emotions in deciding culpability and punishment of criminal and civil moral transgressors. *Cognition & Emotion*, 28(1), 59-83. DOI: 10.1080/02699931.2013.801339
- Lee, G.-H. (2021). Is it a smile or ridicule? Understanding the positivity of smile emoticons between high and low status teenagers in online games (미소인가? 조소인가?: 온라인 게임에서 지위가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웃음 이모티콘 긍정성 이해 차이). *Science of Emotion & Sensitivity*, 24(3), 3-16. DOI: 10.14695/KJSOS.2021.24.3.3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DOI: 10.1007/978-1-4899-0448-5
- Monin, B., & Merritt, A. (2012). Moral hypocrisy, moral inconsistency, and the struggle for moral integrity. In M. Mikulincer & P. R. Shav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and evil*.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10.1037/13091-009
- O'Connor, K., Effron, D. A., & Lucas, B. J. (2020). Moral cleansing as hypocrisy: When private acts of charity make you feel better than you deser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3), 540-559. DOI:10.1037/pspa0000195
- Rubin, Z., & Peplau, L. A.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3), 65-90. DOI: 10.1111/j.1540-4560.1975.tb00997.x
- Stone, J., & Fernandez, N. C. (2008). To practice what we preach: The use of hypocrisy and cognitive dissonance to motivate behavior chang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2), 1024-1051. DOI: 10.1111/j.1751-9004.2008.00088.x
- Tedeschi, J. T., Schlenker, B. R., & Bonoma, T. V. (1971). Cognitive dissonance: Private ratiocination or public spectacle?. *American Psychologist*, 26(8), 685-695. DOI: 10.1037/h0032110
- Törnblom, K., & Kazemi, A. (2012). *Handbook of social resource theory: Theoretical extensions, empirical insights, and social applications*. New York: Springer. DOI: 10.1007/978-1-4614-4175-5
- Wang, Y., Qu, Y., Hou, B., & Tian, Q. (2019). What makes her a material girl?: The influence of childhood economic background and sex ratio on female preference for male resource availability. *Evolutionary Psychology*, 17(1). DOI: 10.1177/1474704919833720
- West, C., & Zhong, C. B. (2015). Moral cleansing.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6, 221-225. DOI: 10.1016/j.copsyc.2015.09.022

원고접수: 2022.08.20

수정접수: 2023.01.29

게재확정: 2023.02.01.

Appendix

<연구 1: 교직원 부정행위 (부자, 기부 조건)>

MK는 국내 4대 부촌 중 하나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테라스형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장이다. 조부모님은 고서적, 미술품 매매업으로 큰 부를 쌓았고, 아버지는 개인병원을 하시다 은퇴 후 어머니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계신다.

MK는 조부모님이 설립한 사립대의 부총장인데, 고3 수험생인 아들 GD가 그 대학에 지원해 추가합격 대기번호 5번을 받았다.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MK는 입학처의 전산자료와 서류를 변조하여 자신의 아들을 추가합격 처리했다. 이후 MK는 학교와 집을 오갈 때 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죄책감에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MK는 여름 장마철 지붕이 무너져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사람들의 사연을 접했다. 약간 주저했으나 MK는 해비타트 집 고치기 사업에 여유자금 5천만원을 후원했고, 이후 죄책감이 사라지는 후련함을 느꼈다.

<연구 1: 미성년자 허위신고 (가난, 봉사 조건)>

일용직인 아버지를 둔 ES는 집 근처의 초중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특성화고를 다니며 주말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노점상을 하였고,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간병비로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다.

방학을 맞아 ES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맥주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취기가 올라 술집 점원과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ES는 그 가게를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뒤 ES는 해당 가게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술김에 충동적으로 신고했지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아 후회와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ES는 결식아동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약간 주저했지만, ES는 방학 한 달간 사랑의 도시락 봉사에 참여해 매일 새벽 4시부터

결식아동 가정 수십 곳에 도시락을 배달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연구 2: 교직원 부정행위 (허약, 봉사 조건)>

MK는 미학을 전공한 예술대학 교직원이다. 중학교 때부터 천식으로 흡입기를 들고 다녔고 저체중으로 군대도 면제받았다. 최근에는 척추질환, 소화불량, 공장장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MK는 재직중인 미대의 입학처 관리직원인데, 고3수험생인 아들 GD가 그 대학에 지원해 추가합격 대기번호 5번을 받았다.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MK는 입학처의 전산자료와 서류를 변조하여 자신의 아들을 추가합격 처리했다. 이후 MK는 학교와 집을 오갈 때 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죄책감에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MK는 여름 장마철 지붕이 무너져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사람들의 사연을 접했다. 약간 주저했으나 MK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병들고 아픈 몸을 억지로 추스려가며 힘든 육체노동이 필요한 해비타트 집 고치기 활동에 15일간 참여했고, 이후 죄책감이 사라지는 후련함을 느꼈다.

<연구 2: 미성년자 허위신고 (건강, 기부 조건)>

고등학생인 ES는 레슬링부 주장으로 어릴 때는 슈퍼우량아로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원래 씨름을 했지만, 레슬링 해비급으로 전향한 후 고등부 준우승을 하는 등 강한 힘과 순발력을 지니고 있다.

방학을 맞아 ES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맥주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취기가 올라 술집 점원과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ES는 그 가게를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뒤 ES는 해당 가게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술김에 충동적으로 신고했지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자영업자와 알바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아 후회와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ES는 결식아동에 대한 후원광고를 보았다. 약간 주저했지만 ES는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사업에 용돈을 털어 매일 5만원의 정기후원을 신청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